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8월 15일하면 대부분 광복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민족은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¹ 건국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귀족, 중인, 천민’, ‘양반, 상민, 노비’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어 평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5000년 만에 처음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1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일을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가의 대표자는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마다 교체된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권력의 기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권력분립주의를 권력의 구조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How Did the Republic of Korea Begin

What happened in Korean history on August 15th?

Most people will think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However, another important event occurred on August 15th. On August 15, 1948, exactly 3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Republic of Korea (a.k.a. South Korea) was established as a 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 are the Owner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liberal democratic state in Korean history. Befor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people had lost their country for 35 years because Joseon (former name of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in 1910. Koreans had been governed by kings for 5,000 years until then. The people were classified by their social status from birth, such as nobles, middle class, commoners and slaves, and were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their social classe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republic¹ in the Korean Peninsula was especially meaningful. It was the first time ever in Korean history that the people became the owners of their own country, where everyone can enjoy liberty and equality under the law.

¹ **A democratic republic.** The Constitution of First Republic, Article 1, Provision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A democratic republic refers to a country where ultimate authority and power is derived from th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itself is run through elected officials. It ha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basis of power, liberal democracy as the political ideology, the separation of powers as its power structure, and it controls the political process with Parliamentarism and the rule of law.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 5.10 총선

민주공화국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직접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직접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 5.10총선
The general election on May 10th was the first free election.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선거는 4가지 선거 원칙을 바탕으로 치러졌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민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요즘 투표율이 40~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국가의 지도자(국회의원)가 처음 선출되었던 5.10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포스터(이승만), 글을 몰랐던 국민들을 위해 그림으로 선거방법을 설명했다.
Campaign Posters for the first general election - Rhee Syngman.
The election procedure was explained with illustrations for illiterate people.

The First Free Election in Korea



5.10 총선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참여했다.
Both men and women participated in the first general election.



제헌국회의원 선거포스터(이윤영)
Campaign Posters for the First General Election -
Lee Yoon-Young.

When establishing a democratic republic, first, the people need to elect representatives who will lead the country. Thus, South Korea had an election to vote for their leaders.

On May 10, 1948, the first election in Korean history was held under democratic procedures. The election was based on four essential principles: direct, fair (one person, one vote), regular (everyone over the age of 21 gets the right to vote), and blind. People could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regardless of their gender or social class. The voter turnout for the first election was 95.5%. It was exceptionally high compared to today's turnout, which is between 40 to 60%. The May 10th general election indeed reconfirmed that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belongs to the people.

제헌국회,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다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902명의 입후보자 중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은 5월 31일에 중앙청 회의실에 모여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시작하여 1948년 12월 18일까지 203일 동안 열린 대한민국 제1대 국회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제헌' 국회로 불립니다.

국회 속기록 첫 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국회는 중요한 나라일을 의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을 속기록이라 합니다. 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속기록을 보면 국회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 감사! ~ 감사! ~ 감사!”

우리나라 첫 속기록은 당시 제헌국회 임시 국회의장²이었던 이승만의 연설로 시작합니다.

²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Opening ceremony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n May 31, 1948



제헌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irst republic



국회 헌정기념관 제헌국회 기념전 사진
제헌의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Poster of the exhibition of historic materials o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t the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People in the poster are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 Groundwork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general election on May 10th had 902 candidates, with 198 members elected to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ose who were elected gathered on May 31, 1948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Capital Building and opened the first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sat for 203 days, from May 31, 1948 to December 18, 1948. Since it adopt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e call it the Constitutional Assembly.

국회 속기록 제1호

The First page of Parliamentary records.

What Is Written on the First Page of the Parliamentary Records?

Since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es important national affairs, every single moment of all the sessions is recorded. Therefore, parliamentary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w the objectiv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 “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 ”

In parliamentary record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 first page starts with opening remarks² of the temporary National Assembly Speaker³, Rhee Syngman.

2 Opening remarks A brief casually expressed thought or opinion in the beginning of a conference or a meeting.

3 Speaker The term speaker is a title often given to the presiding officer (chair) of a deliberative assembly, especially a legislative body. The speaker's official role is to moderate debate, make rulings on procedure, announce the results of votes, and the like.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저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를 위해 드려진 기도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은 연설을 한 후,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나랏일을 의논하기 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 1페이지에는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의 감사 고백과 이윤영 국회의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들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伸冤)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길 기도하나이다.

"We thank God for opening the first session of the independent Republic of Korea. Whatever religion or ideology you have, nobody in this room would say that today's meeting was possible merely by human power. Therefore, I cannot help giving thanks to God. So, first of all, let us all stand up and give thanks to God. Legislator Lee Yoon-Young, please come forward and lead us into prayer."



- Prayer for the Nation

After the opening remarks, Rhee asked one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members, Rev. Lee Yoon-Young from Jongno-gu, to pray for the nation before starting the first session. The full manuscript of this prayer is written on the first page of parliamentary record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and all creatures, and God who rules over the human history, we give sincere thanks to you for blessing this land and giving us this thankful day. We believe that you listened to the agony of our people and pulled out a sword of justice to conquer the Japanese violence and to awake the consciences of the world. Also, I believe that you listened to our sincere desire and gave this historic day of joy, showing your divine providence to all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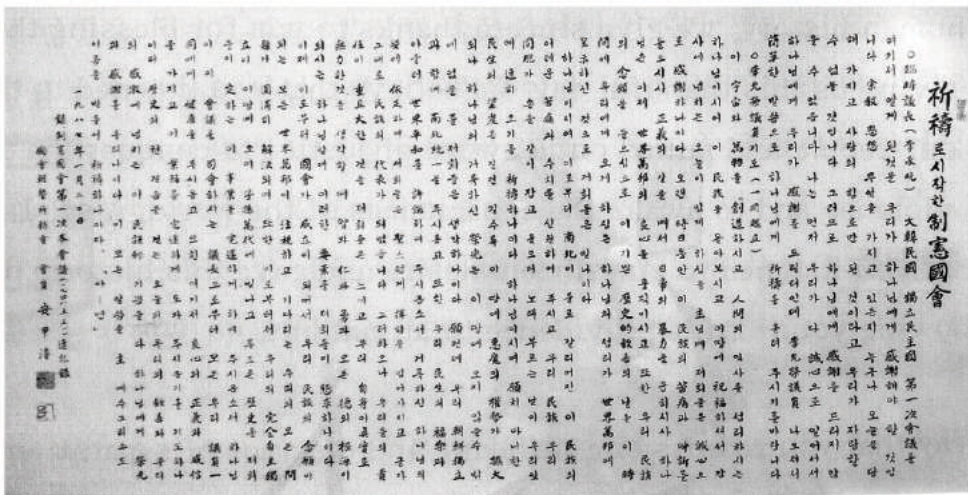
Lord, I pray that you redress our suffering and disgrace of separation, and give us the day that all Koreans hold hands, sing and smile together, soon.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결면 결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파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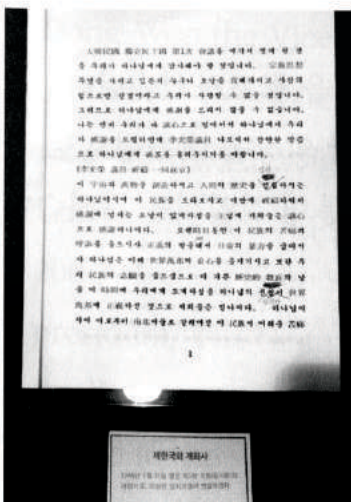
제헌국회 개원식 기도문
Manuscript of the prayer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Lord, as the unwanted misery of the nation lasts longer, the power of evil will grow stronger, and the advent of your holy glory on this land will be delayed.

So Lord, I want you to reunite Korea along with our independence, and also to give us public welfare as well as the world peace.

By your will, we were chosen and literally becam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 We feel heavy responsibilities, and for we are weak, we ask God for knowledge, wisdom, courage and all of the virtues as they all belong to you.

Let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today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our people and the world are willing to solve, and through that, let true independence come to this land, to let us complete our duty in the legacy of resplendent history.



제헌국회 개회사

Opening Remark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
So Lord, I want you
to reunite Korea
along with our independence,
and also to give us public welfare
as well as the world peace
”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는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나라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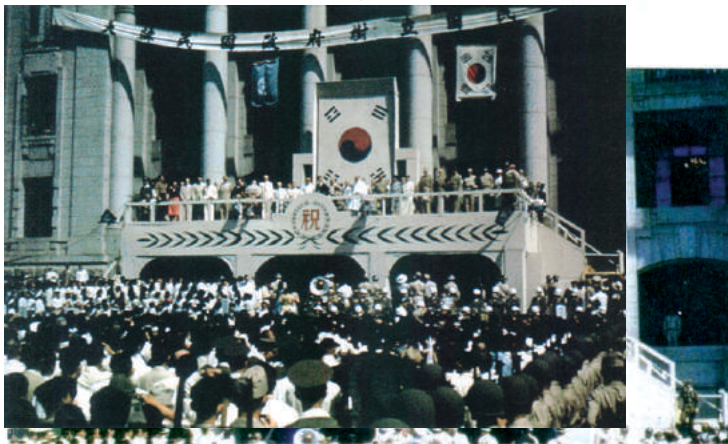
7월 17일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고, 7월 24일에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됩니다.



초대 대통령 취임식 (1948. 7. 24)
The first presidential inauguration

Lord, I pray for wellness of all members, the Speaker and other legislators, and also for our completion of this mission with justice and dignity from our consciences. Today, we take our first step of history with strong delight and impression, and give glory and thanks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1948. 8. 15)
The celebration ceremon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After the brief opening remarks of Rhee Syngman and the prayer by Lee Yoon-Young,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ppointed Rhee Syngman as the Speaker, and Shin Ik-Hee and Kim Dong-Won the Vice-Speakers. On July 1st, the name of the country was declared as the Republic of Korea, and on July 17th, the constitutional law was promulgated with the signature of the Speaker. In addition, under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had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on July 20th, electing Rhee Syngman as its first president, and Lee Si-Young as the vice president. The first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was on July 24th. And finally, on August 15, 1948,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proclaimed to the world.

*** 최단기 국회의장 이승만**

국회 헌정기념관 진기록관에는 최단기 국회의장 이승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5월 31일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7월 24일에 대통령으로 임명됩니다. 7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국회의장을 내려놓은 이승만은 55일 간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최단기 국회의장'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Rhee Syngman,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rving the Shortest Term in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exhibits Rhee's record as the Speaker with the shortest term in office. Rhee was elected as the Speaker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on May 31st, and then 55 days later, on July 20th, he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he had to resign as the Speaker, serving the shortest period of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Visitor Center in Korea, 2014)



제헌국회 : 1948년 5월 31일~1950년 5월 30일